

年齡과 社會階層에 따른 衣服不滿感과 關聯變因 研究

—自我受容性과 自·他위주의 衣服着用—

金 美 泳·李 恩 英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Feelings of Clothing Deprivation and Related Variables among Different Age and Socioeconomic groups of Korean Female Students

Mi Young Kim and Eun Young R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 7. 13 접수)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eelings of clothing deprivation, dressing for self, dressing for others, and self-acceptance,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by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feelings of clothing deprivation and dressing for self.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feelings of clothing deprivation and dressing for others, and between dressing for self and dressing for others.

2. There was a nega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and feelings of clothing deprivation, while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elf-acceptance and dressing for self.

I. 緒 論

衣服의 역할은 社會的 側面에서 볼 때, 社會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象徵的 역할과, 個人的 側面에서 볼 때 着用者에게 주는 心理的 역할의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1,2)}. 衣服이 갖는 心理的인 역할에 관하여以前의 研究를 통해 볼 때^{3,4,5)} 착용자가 느끼는 衣服의 不滿感은 心理적 결핍감을 일으켜 自信感을 잃게 하고, 行動에도 反映되어 社會참여도를 낮아지게 한다. 특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自我觀이不安定한 시기인 靑少年期에는 衣服에 대한 滿足과 不滿이 그들의 분위기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靑少年들을 對象으로 衣服不滿感에 대하여 研究하는 것은意義 있는 일이라 하겠다.

個人마다 衣服에 대한 價值나 認知 内容이 多樣하여⁶⁾, 衣服을 着用할 때 衣服의 社會的 側面과 個人的 側面 중 어느 側面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衣服을 着用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對象이 달라질 것이다. 즉, 社會的 側面에 중점을 둔다면, 他人들의 認定을

반기 위해서 衣服을 着用할 것이다, 個人的 侧面에 중점을 둔다면 자기 자신의 滿足을 느끼기 위해서 衣服을 着用할 것이다. 따라서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을 研究變因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心理學의 몇 학자들^{7,8,9,10)}의 自我概念에 대한 理論을 종합해 보면, 自我概念은 있는 그대로의 現實的自我와, 理想的自我로 나눌수 있는데 이 두 自我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갈등의 정도가 自我受容의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現實的自我는 他人에 의해 관찰된 資料를 가지고 추론된 自我와 자신 스스로 知覺하고 있는 自我에 의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궁지나 굴욕감의 自我觀을 느끼게 되는데¹¹⁾, 이때 外의인 要素로 外貌와 衣服이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外貌를 통하여 形成되는 自我是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및 衣服不滿感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衣服行動과 自我觀은 年齡과 社會經濟의 인 환경 要素의 영향을 받으므로^{4,8,12~14)} 本研究에서 年齡과 社會階層에 따른 衣服不滿感,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및 自我受容性의 差異와 이를 變因들 사이의 關係를 밝혀보려 한다.

II. 假說 및 用語定義

1. 假 說

本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零假說을 세웠다.

假說 I : 衣服行動과 自我受容性

①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衣服不滿感,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사이에는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②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 사이에는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假說 II : 年齡 및 社會階層에 따른 差異

①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는 年齡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②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는 社會階層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2. 用語定義

1) 衣服不滿感(Clothing deprivation) : 社會의, 心理의 不安함과 關係된 자기 자신의 衣服에 대한 不滿感¹⁵⁾

2)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Dressing for self) : 자기 자신의 外의인 魅力과 心理의 滿足을 느끼기 위하여 衣服을 着用하는 行動과 態度

3)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Dressing for others) : 他人들로부터 外의인 魅力を 認定받기 위하여 衣服을 着用하는 行動과 態度

4) 自我受容性(Self acceptance) : 本研究에서의 自我受容性은 現實的自我와 理想的自我의 差異로 한계를 지었다.

① 現實的自我(Real self) : 자신 스스로 知覺하고 있는 自我와 他人에 의해 관찰된 資料를 가지고 추론된 自我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事實의 規定이다^{8,17)}.

② 理想的自我(Ideal self) : 自己가 도달하려고 하는 信念體制이다⁸⁾.

III. 理論的 背景

1. 自我受容性

自我라고 하는 概念은 학자에 따라 自己(self) 또는 自我(ego)라고도 하며, 自己像, 自我概念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¹⁸⁾. 특히 自我와 自己는 구별해서 쓰기도 했고,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했는데, 최근 要因分析研究(Rentz와 White)결과, 自己와 自我가 獨립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¹⁹⁾.

自我概念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중 Hurlock⁹⁾의 분류에 의하면, 現實的自我(real self)에 해당되는 基本的自我概念, 상황에 따라 流動的으로 變하는 暫定的自我概念, 他人의 言語, 行動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自己를 보느냐 하는 것에 바탕을 둔 社會的自我概念, 그리고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지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理想的自我概念의 네 가지로 나눈다. 카렐⁷⁾은 直接的으로 느끼는 自我(Actual or Behavioral Self), 理想으로 가지고 있는 自我(Ideal or Ideational Self), 他人의 觀察에 의해 파악되는 自我(Structural Self)로 나눠 고찰하고 있다. Carl Rogers¹⁰⁾도 있는 그대로의 自己와 理想的自己로 나눠 이 두 自己 사이의 差異가 크면 단족감을 염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上의 분류를 종합하여 自我是 大別하여 보면, 自己와 他人에 의해 知覺된 自我인 現實的自我와 理想的自我로 나눌 수 있다.

自我概念의 形成과 발달과정을 볼 때, 青少年期가 되면 새로운 自我에 눈을 뜨게되어 自我를 社會와 연결시켜 客觀的으로 비판하며 여기에서 理想과 現實과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理想과 대립되는 現實의自我는 열등감과 정신적 갈등을 일으켜 불안과 긴장속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初期 成年期가 되면, 自己와 社會와의 調和, 現實과 理想과의妥協이 점차 성립되어간다^{20,21}. 이런 自我概念形成에 社會內에서의 個人的 위치, 직업, 연령, 성별, 가족조직등의 社會的 要因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8,13,14,22}.

2. 衣服不滿感

衣服의 心理的, 社會的 側面에 관한 研究로 Ryan²³과 Hurlock²⁴은 자기자신에 대한 信賴感은 他人으로부터 認定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며, 특히 青少年의 男女에게 衣服과 外貌가 他人으로부터의 認定에 중요한 역할을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青少年들은 동료집단의 受容性의 문제로 衣服을 着用하는데 他人을 意識하게 된다.

青少年期는 人生의 어떤 시기보다 衣服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의 정도가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3,4,25,26}. Ryan⁴은 초라한 衣服이 行動에 미치는 영향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거나, 心理의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他人의 시야에서 벗어나 구석진 자리에 앉으려 하고, 또는 말이 없어지고, 社會活動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衣服의 不滿感에서 오는 心理的 위축감은 個個人의, 社會的인 適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衣服이 心理的으로 着用者에게 미치는 영향은 社會經濟的인 要因과 年齡에 따라 달라진다^{4,12,15}. Kelley²⁷는 여러 社會階層의 兒童들이 한 集團속에서 生活을 할 경우, 下流階層의 兒童은 中流, 上流階層의 兒童들보다 衣服不滿感이 클것이라고 하였고, Ryan⁴은 外貌에對한 自信感은 知的 水準과 社會經濟的인 背景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Vener¹²도 年齡과 社會經濟的地位가 높을수록 衣服不滿感이 낮다고 하였다.

3. 自我受容性과 衣服不滿感

Stone²⁸은 衣服은 着用者가 스스로의 용모를 볼때와 他人이 그 着用者的 용모를 볼때의 두가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衣服은 自己와 他人에게 미치는 兩面의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衣服은 자기 스스로 知覺하고 있는 自我와, 他人에 의해 관찰된 資料를 가지고 추론하는 自我를 形成하는데 外的인 要素가 된다. George Hart-

man²⁸은 衣服은 自我의 확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고, Road²⁹와 Ryan⁴도 自我概念 形成에 衣服은 중요한 部分으로 外貌나 身體的 매력을 衣服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個人마다 衣服에 대한 價値나 認知 内容이 多樣하며, 이것은 社會·文化的인 환경 要因과 心理的 要因에 기인한다⁶. Kelley²⁶는 衣服은 특히 文化的으로 결핍된 兒童의 人性發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Humphrey⁶는 心理的으로 不安한 感情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Riley¹⁵는 그의 青少年을 대상으로 한 研究에서 自己의 理想의 自我와 現實의 自我의 差가 작은 사람일수록 衣服不滿感이 작다고 하였다. Drake와 Ford²⁵의 研究에서 보면 自我가 受容이 잘된 사람일수록 자기자신의 滿足을 위해서 衣服을 着用하고, 自我가 受容이 잘 안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보다 他人을 意識하면서 衣服을 着用하며, 자신의 衣服이 부적합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즉 衣服은 欲求를 滿足시키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적 위치의 극복 手段이며, 욕구가 滿足되어진 사람에게는 自我表現의 手段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⁶.

以上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研究들을 통해 볼 때 衣服은 自我의 信賴感 증대와 自我受容性과相互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研究方法

1. 調查對象

人間의 發達段階에 따른 前期 青少年期(12~15세), 後期 青少年期(16~20세), 初期 成年期(21~29세)의 세 年齡 集團의 中 1, 高 2, 大 4의 女學生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¹¹. 이들 세 集團은 서울시내에 있는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로 한정하여 分類標集한 後, 上流, 中流, 下流의 세 社會階層으로 分類하여 分析하였다. 資料蒐集은 1982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實시되었으며, 累計된 資料 중 최종 333부를 統計處理에 使用하였다.

2. 測定道具

1) 衣服不滿感 : Riley¹⁵에 依해 作成된 道具를 廉價, 수정하여 使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衣服不滿感이 높다.

2) 自己 尊重의 衣服着用, 他人 尊重의 衣服着用 : Pasnak¹⁶이 開發한 測定道具를 廉價, 수정하여 使用

하였다.

3) 自我受容性 : Bill¹⁵⁾에 의해 개발된 것을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現實的自我理想的自我 사이에 差異가 많은 것으로自我受容성이 낮다.

4) 社會階層 :家長의 職業水準, 教育水準, 家內物品의 所有程度의 3개 問項을 使用하여 測定하였다. 職業에 관한 問項은 自由記述式한 後, 7段階로 分類하여³⁰⁾, 1~7점까지 점수를 부가하였고, 教育水準에 관한 問項은 無學에서 4年制大學卒業까지의 6段階로 分類하여, 1~6점까지 점수를 부가하였다. 家內物品의 所有程度의 尺度構成은 Guttman 尺度法으로, 9項目을 선정하여 9점까지의 점수를 부가하였다.

3. 資料分析

各 下位尺度別 質問에 對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假說 I 을 檢證하기 위하여 部分相關係數를, 假說 II를 檢證하기 위하여 一元分散分析과 Scheffé-test를 使用하였고, 相互作用 效果는 각 獨立變因을 통제한 후 一元分散分析을 使用하였다.

V. 研究結果 및 論議

1. 假 說 I

①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②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1)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

〈表 1〉에서 보듯이 衣服不滿感과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은 質的인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자신의 衣服에 對해 社會的, 心理的으로 滿足하고 있는 사람은 衣服을 自我의 表現手段으로 使用하기 때문에⁶⁾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해석해 보면, 자기자신의 外的인 매력과 心理的滿足을 위하여 衣服을 着用하는 사람은 衣服不滿感이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衣服不滿感이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과는 正의인 關係를 보이고 있어 他人이 自身의 外的인 매력을 認定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衣服不滿感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사이에는 正의인 關係를 나타내고 있어,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은 서로 公존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衣服의 2가지 기능 즉 社

〈表 1〉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 사이의 Pearson 積率相關係數

	衣服不滿感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	-0.0941*	0.2561***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0.1211*	

*p<0.05, ***p<0.001

〈表 2〉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사이의 Pearson 積率相關係數

	自我受容性 ^a
衣服不滿感	0.1382**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	0.1864***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0.0244

P<0.01, *P<0.001

a: 自我受容性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自我受容性을 나타내므로 衣服行動變因과의 相關關係는 반대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會的인 面으로 他人에게 주는 象徵的 役割과 個人的으로 着用者에게 주는 心理的 영향이 상호 公존하고 있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解釋된다. 즉, 衣服의 한 가지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 역할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은 상호 배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

〈表 2〉의 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自我受容性과 衣服不滿感은 質的인 關係를 보이고 있다. 즉 衣服은 心理的으로 不安한 사람에게 더욱 영향을 주어 自我受容性이 낮은 사람일수록 衣服不滿感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 結果는 以前의 研究들과^{15, 25)}同一한 結果를 보이고 있으며, 女大生의 경우 衣裳의 滿足度는 自我概念 要因들과 肯定的인 關係가 있다고 한 임춘봉³²⁾의 研究, 및 Edwards, Brewerton, Brawley³²⁾의 研究를 지지하고 있다. 自我受容性과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는 正의인 關係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自我受容性이 높은 사람은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을 하여 自我를 表現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自我受容性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以前의 Drake와 Ford²⁵⁾의 청소년을 對象으로 한 研究에서는 自我受容性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에서 有意한 質的 相關關係가 나타났으며, 洪今姬의³³⁾既婚 成人女性을 對象으로 한 研究에서도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에 있어 他人을 意

〈表 3〉 年齢에 따른自我受容의 差異 : 一元分散分析

年齢 分析	中學校 1學年	高等學校 2學年	大學校 4學年
	M	23.719	24.180
S.D.	8.297	7.452	6.724
n	114	111	108
一元分散分析	Fratio=9.203**, P<0.001		

〈表 4〉 年齢에 따른自我受容性의 差異 : Scheffé test

	평균의 差	S×SE
中 1·高 2	0.4609	2.472($\alpha=0.05$)
高 2·大 4	3.5341**	3.073($\alpha=0.01$)
中 1·大 4	3.995**	3.088($\alpha=0.01$)

$$S_{0.01}, (2, 330) = 3.058, S_{0.05}, (2, 330) = 2.460$$

識하는 ‘認定’變因 사이에 質的 相關關係가 나타났다. 本研究結果에서 以前의 研究結果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標本이 주로 青少年期의 中高等學生들로서 대부분 校服을 着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推測된다.

以上의 結果로 假說 I 은 部分的으로 否定되었다.

2. 假 說 II

①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는 年齢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②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는 社會階層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1) 自我受容性

① 年齢에 따른 差異

初期 青少年(中 1)과 後期 青少年(高 2) 사이에는自我受容性에 있어서 有意한 差異가 없으나 나머지 두 年齡 集團사이에는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初期 青少年과 後期 青少年 사이에는自我受容性이 크게 變化하지 않으나 初期 成年인 大學校 4學年은自我受容性이 현저하게 높아져 初·後期 青少年과 初期 成年 사이에는 有意한 差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것은 青少年에서 成人이 되어감에 따라自我受容性이 증가한다는²¹⁾ 理論을 지지하고 있다.

② 社會階層에 따른 差異

〈表 5〉에서 보듯이 社會階層과 自我受容性 사이에는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Scheffé-test 結果, 특히 中流와 上流階層 사이에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上流階層이 中流階層보다自我受容性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流와 下流階層 사이에서는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p=0.0133$), 下流階層이

〈表 5〉 社會階層에 따른自我受容性의 差異 : 一元分散分析

階層 分析	上流階層	中流階層	下流階層
	M	21.638	24.472
S.D.	7.979	7.626	7.441
n	141	108	84

$$\text{一元分散分析} \quad \text{Fratio}=4.376^*, P=0.0133$$

a: 높은 점수는 낮은 자아수용성으로 나타남.

〈表 6〉 社會階層에 따른自我受容性의 差異 : Scheffé test

	평균의 差	S×SE
下流·中流	2.163	2.740($\alpha=0.05$)
中流·上流	2.836*	2.773($\alpha=0.05$)
下流·上流	0.671	2.595($\alpha=0.05$)

$$S_{0.05}(2, 330)=2.460$$

中流階層보다自我受容性의 평균이 다소 높다. 이것은 以前의 研究³⁴⁾에서 中流層은 不安定과 心理的不安을 特性으로 하고, 上流層으로 이동하려고 애쓰며, 上流層과 同一視하려는 의욕이 있어 자신의 現在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自我의 受容性도 낮은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下流層은 체면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現在를 위해 살고, 不確實한 未來에 달려드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下流層은 中流層보다 上流를 向하려는 욕구가 적고, 現在에 滿足하여 中流層보다 오히려自我受容性이 높은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結果는 流行傳播說³⁵⁾上流層은 社會的으로 安定하기 때문에, 또 下流層은 전통이나 체면, 社會的 地位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中流層보다 流行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上向傳播說³⁶⁾(Bottom-up theory)를 지지하고 있다.

2) 衣服不滿感

① 年齢에 따른 差異

〈表 7〉 年齢에 따른 衣服不滿感의 差異 : 一元分散分析

年齢 分析	中學校 1學年	高等學校 2學年	大學校 4學年
	M	17.211	17.477
S.D.	3.829	3.379	2.758
n	114	111	108
一元分散分析	Fratio=2.278, P=0.1041		

〈表 8〉 年齡에 따른 衣服不滿感의 差異(社會階層통제) : 一元分散分析

年齡 分析	上流階層			中流階層			不流階層		
	中 1	高 2	大 4	中 1	高 2	大 4	中 1	高 2	大 4
M	15.214	17.108	18.200	17.553	17.347	17.571	18.104	18.333	18.833
S. D.	3.645	2.994	2.542	3.694	3.449	3.572	3.686	3.784	2.480
n	28	38	75	38	49	21	48	24	12
一元分散分析	$F_{ratio} = 10.867^{***}, P < 0.0001$			$F_{ratio} = 0.048, P = 0.9532$			$F_{ratio} = 0.204, P = 0.8157$		

〈表 9〉 上流階層의 年齡에 따른 衣服不滿感의 差異(社會階層통제) : Scheffé-test

	평균의 差	S × SE
中 1·高 2	1.894*	1.795 ($\alpha = 0.05$)
高 2·大 4	1.092	1.442 ($\alpha = 0.05$)
中 1·大 4	2.986*	1.974 ($\alpha = 0.05$)

$$S_{0.05}(2, 138) = 2.476$$

〈表 7〉의 結果를 보면, 年齡에 따른 衣服不滿感의 差異는 有意하지 않으나 ($p=0.1041$),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年齡이 높아질수록 다소 衣服不滿感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연구^{4,12)}에서 특히 青少年期에는 衣服에 對한 관심이 증가하여 成年期보다 衣服이 그들의 氣分이나 行動에 많은 영향을 끼쳐 滿足스럽지 못한 衣服을 입었을 때 心理的으로 不安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本研究結果는 外國의 研究結果와는 반대적 樣相으로 우리나라의 中高生들이 校服을 着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그러나 〈表 8〉의 結果와 같이 社會階層을 통제하였을 경우 上流階層에서만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Scheffé-test에 의하면, 上流階層의 中 1과 高 2 사이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고, 高 2와 大 4 사이에는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다. 中 1과 高 2 사이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은 後期 青少

年期에 衣服에 對한 관심이 前期 青少年期에 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⁴⁾ 高 2가 中 1보다 衣服不滿成이 더욱 커지리라 推測된다.

以上에서와 같이 上流階層에서만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Mayer 와 Buckley³⁴⁾가 上流層은 사치스러운 자동차와 流行에 따른 衣服을 부유층의 地位象徵으로 보고 있다고 한 것과 金貞鎬³⁶⁾의 研究結果에서 社會階層이 上流 > 中流 > 下流의 순으로 衣服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上流層은 年齡이 증가할수록 衣服의 중요성을 다른 階層보다 더욱 더 認識하게 되어 衣服不滿感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社會階層에 따른 差異

〈表 10〉의 結果와 같이 年齡을 통제하였을 경우, 社會階層에 依한 差異가 中學校 1學年 集團에서 나타났다. 中 1集團의 경우에 上流階層에서 下流階層으로 갈수록 衣服不滿感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Vener¹²⁾의 結果와 一致한다. 특히 이런 結果가 中 1集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中 1集團의 경우, 中流·下流階層의 學生들이 多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上流階層과 섞여 있음으로 더욱 衣服不滿感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標本을 분석해 보면, 學年이 높아질수록 上流階層 가정의 자녀가 多數를 이루고, 學年이 낮아질수록 下流階層 가정의 자녀가 多數를 이룬다. 大學校 4學年

〈表 10〉 社會階層에 따른 衣服不滿感의 差異(年齡통제) : 一元分散分析

社會階層 分析	中學校 1學年			高等學校 2學年			大學校 4學年		
	上 流	中 流	上 流	上 流	中 流	下 流	上 流	中 流	下 流
M	15.214	17.553	18.104	17.105	17.347	18.333	18.200	17.571	18.833
S. D.	3.645	3.696	3.686	2.994	3.449	3.784	2.542	3.572	2.480
n	28	38	48	38	49	24	75	21	12
一元分散分析	$F_{ratio} = 0.840^{**}, P = 0.0044$			$F_{ratio} = 1.038, P = 0.3676$			$F_{ratio} = 0.840, P = 0.4345$		

〈表 11〉 中學校 1學年의 社會階層에 따른 衣服不滿感의 差異(年齡통제) : Scheffé test

	평균의 差	S×SE
上流·中流	2.339*	2.274($\alpha=0.05$)
上流·下流	2.890*	2.172($\alpha=0.05$)
中流·下流	0.551	1.983($\alpha=0.05$)

$S_{0.05}(2,114)=2.482$

〈表 12〉 年齡에 따른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의 差異 : 一元分散分析

分析	年齡	中學校 1學年	高等學校 2學年	大學校 4學年
		M	30.746	35.640
	S. D.	5.457	4.651	4.586
	n	114	111	108

$\text{一元分散分析} \quad F\text{ratio}=40.670^{***}, P<0.0001$

〈表 13〉 年齡에 따른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의 差異 : Scheffé test

	평균의 差	S×SE
中 1·高 2	4.894**	2.009($\alpha=0.01$)
高 2·大 4	0.443	1.624($\alpha=0.05$)
中 1·大 4	5.340**	2.007($\alpha=0.01$)

$S_{0.01}(2,330)=3.058, S_{0.05}(2,330)=2.460$

〈表 14〉 年齡에 따른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行動의 差異(社會階層통제) : 一元分散分析

分析	年齡	上流階層			中流階層			下流階層		
		中 1	高 2	大 4	中 1	高 2	大 4	中 1	高 2	大 4
	M	29.929	35.895	36.333	31.053	35.347	35.762	30.979	35.833	35.083
	S. D.	6.206	5.029	4.114	6.405	4.876	6.092	4.082	3.583	4.641
	n	28	38	75	38	49	21	48	24	12

分析	Fratio - 18.884***, P<0.0001	Fratio = 7.463**, P=0.009	Fratio = 3.567***, P<0.0001
----	------------------------------	---------------------------	-----------------------------

〈表 15〉 年齡에 따른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行動의 差異(社會階層통제) : Scheffé test

	上流階層		中流階層		下流階層	
	평균의 差	S×SE	평균의 差	S×SE	평균의 差	S×E
中 1·高 2	5.966**	3.714($\alpha=0.01$)	4.294**	3.828($\alpha=0.01$)	4.854**	3.146($\alpha=0.01$)
高 2·大 4	0.438	2.394($\alpha=0.05$)	0.415	3.686($\alpha=0.05$)	0.750	3.553($\alpha=0.05$)
中 1·大 4	6.404**	3.301($\alpha=0.01$)	4.709*	3.843($\alpha=0.05$)	4.104**	4.061($\alpha=0.01$)
	$S_{0.01}(2,138)=3.085$		$S_{0.01}(2,105)=3.102$		$S_{0.01}(2,81)=3.123$	
	$S_{0.05}(2,138)=2.476$		$S_{0.05}(2,105)=2.484$		$S_{0.05}(2,81)=2.494$	

므로 衣服을 着用할 때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을 하게 되는데, 특히 後期 青少年期에는 衣服에 대한 관심이 前期 青少年期 때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中 1과 高 2 사이에서 점수가 증가하여 有意한 差異가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高 2와 大 4 사이에는 有意한 差異가 없다. 즉, 青少年期 以後에는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의 경향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社會階層에 따른 差異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은 社會階層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다.

以上의 結果로 假說Ⅱ는 部分的으로 否定되었다.

VI. 要約 및 結論

衣服行動의 各 下位尺度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있다.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 衣服不滿感 사이에는 貧的인 關係를 나타내고,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과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사이에는 正的인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은 有意한 關係가 있다. 즉, 自我受容性이 높은 사람일수록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을 하며, 衣服不滿感이 낮았다.

年齡과 社會階層에 따른 差異는 自我受容性과 衣服不滿感,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에서 有意한 差異가 있다. 이때 衣服不滿感은, 上流階層에서, 學年이 높아질수록 衣服不滿感이 높아지고 있어 年齡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學年이 높아질수록 衣服不滿感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外國의 研究結果와는 반대적 樣相으로 우리나라의 中高等學生들이 校服을 着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석된다. 이에 따라 中·高生 자유복 着用 後, 青少年들의 衣服行動과 自我受容性의 樣相을 후속으로 研究하여 교복과 자유복의 着用에 青少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므로써 자유복 착용으로 생기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以上에서의 結果로 自我受容性과 衣服行動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있고, 年齡과 社會階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동료집단의 受容을 중요시하는 青少年들에게는 衣服이 동료집단 受容의 중요한 要素가 되어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을 하게 되며, 衣服에 대한 滿足과 不滿은 青少年들의 분위기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自我受容性을 높여주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衣服不滿感을 적게 하여 건전한 社會生活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參考文獻

-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The Hogarth Press, London, 15~16, (1930)
- Stone, G.P., *Appearance and the Self*, Roach, M.E. and Eicher, G.B., ed.,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Inc., N.Y., 222, (1965)
- Ryan, M.S., *Effect on College Girl of Feeling Well Dressed*, *Journal of Home Economics*, 43, 799, (1951)
-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269~301, (1966)
- 김재숙, 여대생의 의복과 용모의 반복도가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 491~497, (1976)
- Humphrey, C., Klaasen, M., and Creekmore, A. 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1971)
-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法文社, 34, (1980)
- 閔榮順, 發達心理學, 教育出版社, 297, (1977)
- 尹熙晙, 人性心理入門, 教育出版社, 66~68, (1977)
- 李志永, 李寬鎔, 洪承澈 共譯, 性格의 理論, 서울中央適性研究所, 575~584, (1979)
- 金環東, 現代의 社會學, 博英社, 235, 238, (1978)
- Vener, A.M. and Hoffer, C.R., *Adolescent Orientation to Clothing*, Roach, M.E. and Eicher, G.B., ed.,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Inc., 71~81, (1965)
- 尹熙晙, op. cit., 69.
- 張秉琳, 社會心理學, 博英社, 118, (1980)
- Riley, G.M., *Psychological and Social Clothing Deprivation as Related to Personal Adjustment and Graduation potential in Ninth and Tenth grade Black Fema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nnessee, (1974)
- Pasnak, M.F., *Fashion innovations compared with noninnovations on Clothing attitudes, Self-actualization and Tolerance of ambiguity*, Doctori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 University,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No. 68-15, 140., (1968)
- 17) 尹熙陵, op. cit., 63.
- 18) 尹熙陵, op. cit, 57.
- 19) 李志永, 李寬鎔, 洪承敬 共譯, op. cit, 566.
- 20) 閔榮順, op. cit., 294.
- 21) 尹熙陵, op. cit., 68.
- 22) Erikson, E.H.,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y of Issues*, 1, (1959)
- 23) Ryan, M.S., Psychological Effects of Clothing, Cornell University Experimentals Staton Bulletin, No. 898, 1-27, (1953)
- 24) Hurlock, E., Motivation in Fashion, Archives of Psychology, Number Ⅲ, (1929)
- 25) Drake, F.M. and Ford, I.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3-291, (1979)
- 26) Kelley, A.E., Daigle, C.W., Lafleur, R.S., and Wills, L.J., Adolescent Dress and Soic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167-175, (1974)
- 27) Kelley, A.E., and Turner, D.N., Clothing Awareness and Feeling of Deprivation and Satisfaction among Lower Social Class First-grade Children,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396-400, (1970)
- 28)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The Macmillan company, M.Y., Collier-Macmillan Limited, London, 99-100, (1972)
- 29) Road, K.H., Clothing Help Build Personal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42, 348-350, (1950)
- 30) 金泳謨, 韓國社會階層研究, 一潮閣, (1982)
- 31) Nie, N.H., Hull, C.H., Jenkins, J.G., Steinbrenner, K., and Bent, D.H.,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N.Y.: Mc Graw-Hill, (1975)
- 32) 임춘봉, 大學生의 自我概念과 衣裳行爲와의 相關關係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 33) 洪今姬, 受容性, 硬直性의 性格特性과 衣服行動間의 關係研究, 서울大 大學院 衣類學科碩士學位論文, (1982)
- 34) Mayer, K.B., Buckley, W., Class and Society, N.Y.: Random House, Inc., 92-93, (1970)
- 35) Greenwood, K.M. and Murphy, M.F.,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Y.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London, 73, (1978)
- 36) 金貞鎔, 社會階層과 衣服行動—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서울大 大學院 衣類學科 碩士學位論文, 36-41, (1981)